

정종진 ‘2억8400만원’ 상금왕

경륜 데뷔 4년만에 최고액 경신
김현경·박용범·박병하 뒤이어

수도권 대표에서 경륜 최강자에 오른 정종진(30·20기)이 경륜 입문 4년 만에 경륜 최고 상금왕에 올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영사업본부의 2016년 상금지급 자료에 의하면 2016시즌 상금으로 2억8400만원을 받아 경륜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다. 박용범이 보유하고 있던 역대 최고 상금액(2억4800만원)을 경신한 신기록이다.

상금 2위는 김현경의 2억1400만원이다. 2015그랑프리 챔피언 박용범은 낙차사고로 출전일수가 적었지만 2억400만원으로 상금랭킹 3위에 올랐다. 박병하(1억8400만원)가 4위, 21기 성낙송(1억8300만원)이 5위다.

지난 시즌 다승, 전체 성적순위 등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데뷔 이후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정종진은 6차례의 대상경주에서 3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 상반기 그랑프리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대상 경



정종진

2016년 경륜 상금 10월 (단위 원)				
순위	선수	나이	상금	출주일수
1	정종진	30	2억8430만8850	52
2	김현경	36	2억1422만2600	54
3	박용범	29	2억436만9100	39
4	박병하	36	1억8392만3700	48
5	성낙송	27	1억8333만3900	55
6	전영규	32	1억8255만3650	59
7	강진남	30	1억7623만5500	57
8	정하늘	27	1억7321만8100	55
9	김주상	34	1억7033만1250	49
10	황인혁	29	1억6489만9150	54

륜’과 연말 별들의 전장으로 불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에서 모두 우승하며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그랑프리 경륜에서는 전년도 챔피언 박용범의 추격을 따돌리고 챔피언에 올라 2015년 준우승의 아쉬움도 날렸다. 그 결과 정종진은 2016년 경륜선수 시상식에서 당당히 최우수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2013년 11월8일에 20기 경륜선수로 데뷔한 정종진은 첫째 6차례 경기에 출전해 3번의 1위

를 기록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에는 58차례 출전해 1차 8회, 2차 17회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종진의 진가는 2015년부터 발휘됐다. 64차례 출전해 1차 47회로 73%의 승률로 최강자 반열에 올랐다. 상금 순위는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박용범에 1600만원 못 미친 2위였다. 2016년은 그야말로 ‘정종진의 해’였다. 67차례 출전해 1차 59회로 88%의 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륜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제15회 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 참가자들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 선수단 합동훈련

아이스하키 등 4개 종목서 친선경기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8일부터 14일 까지 일본 이와테현과

아키타현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는 제15회 한일 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에 대한민국 선수단 159명을 파견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스포츠 교류에는 한일 양국에서 총 32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4개 종목에 159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번 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는 이와테현에는 103명(빙상 58명·아이스하키 27명·컬링 13명·분부임원 5명)의 선수단이, 아키타현에는 56명(스키 54명·분부임원 2명)의 선수단이 파견

되어 각각 일주일간 친선경기를 치른다.

양국 선수단 320여명은 일주일간의 합동훈련과 친선경기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및 역사탐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친목의 시간을 갖게 된다.

제15회 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 초청사업은 2월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및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사업은 1996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결과에 따른 결과물이다. 양국 청소년들이 스포츠·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1997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초청 및 파견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동계종목으로 확대해 시행해오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제23기 경륜선수후보생 입학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영사업본부가 5일 경륜훈련원에서 후보생 가족과 경륜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기 경륜선수후보생 입학식을 했다. 후보생은 총 30명으로 이들은 3차례의 선발시험을 통과했다. 후보생 가운데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단체 스피리트 금메달리스트 강동진도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22기 새내기의 반란...이제 시작이다

최근 데뷔전을 치른 22기 새내기들이 수준급 경기력으로 경륜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개장과 함께 데뷔 경기를 치른 새내기는 총 8명이다. 이번 시즌 경륜 선수로 데뷔하는 16명 가운데 딱 절반이다.

데뷔전은 성공적이다. 22기 수석졸업자 최래선(30)의 데뷔전은 이렇지 않지만 이번 1회차에서 22기 새내기들이 보여준 활약상만으로 팬들에게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광명 스피돔에서 22기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데뷔전(선발 2경주)을 치른 이기주가 선형으로 3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선발 3경주에서 김민준이 1위, 선발 4경주에서 윤현구가 2위로 화

려한 신고식을 했다. 창원에서는 선발급 박진철과 김제영이 데뷔전에서 2, 3위를 기록했다. 우수급에서는 김희준(26)과 강준영(32)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데뷔전의 백미는 22기 우수경기상 수상자 김희준이었다. 졸업순위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려 이번 시즌 우수급으로 데뷔한 김희준은 6월 우수 10경주에 출전해 과감한 선형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데뷔 첫 승이다.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새내기들의 활약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우수급의 김희준과 강준영이 토요일 경주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하며 일요일 우수급 결승경주에서 만났다. 비록 결승경주에

올해 첫 경주서 김희준·강준영 등 입상
수석졸업자 최래선 등 기대주 데뷔 앞뒤

서 김희준이 4위, 강준영이 5위를 차지해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선발급에서는 김민준과 윤현구가 토요일 경주에서 1위(선발 1경주) 2위(선발 5경주)를 차지하며 선발 결승경주에서 만나 나란히 1위, 2위를 했다.

22기들의 데뷔전 특징은 선행승부였다. 데뷔전에서 입상한 7명 모두가 선행에 나섰다. “신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팬들에게 알리고 경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22기들도 인터뷰에서 선행승부 의지를 보였다. 당분간 자신의 체력특성과는 상관없이 선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주분석의 참고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종건 기자

강급자-무서운 신인 22기, 기싸움 치열

노련미와 패기의 싸움... 초반 관전포인트

2017년 상반기 등급조정이 발표 된 이후 1회차 경주가 광명과 창원에서 각각 치러졌다. 2017시즌의 첫 회차다. 22기 신인들의 데뷔전까지 맞물리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막상 무경을 열어보니 경주 결과는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몇몇 경주에서 강급자들이 고전해 이번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금요 경주와 토요일 경주에서는 기존 선수들과 22기 신인들이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2기와 강급자들을 모두 배려한 편성의 효과를 봤지만 강급자와 22기 신인들 모두 철저한 준비 속에 집중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돋보인 것은 관록이 묻어나는 기존 선수들의 노련한 경주 운영이었다. 특히 8일 우수급 결승 10경주는 기존 선수들의 경기력이 22기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22기 김희준과 강준영을 상대로 정재원(18기), 고병수(8기), 박성호(13기) 등이 맞붙어 치열한 접전지 예고된 레이아웃이었다. 경기가 진행되자 기존 선수들이 중심에 나서며 유리한 위치에 먼저 올라갔다.

초반에는 기습 선행에 나선 강준영이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정재원의 노련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정재원은 상반기 등급조정에서 기량이 가장 우수한 특선급 강급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선급에서도 자주 입상권에 들 정도로 탄탄한 기량을 갖췄다. 강준영의 선행을 활용한 정재원은 노련미와 추임력을 앞세우며 우승, 3연승을 달렸다. 가볍게 조기 승급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재원의 후방에서 마크에 집중하며 견제를 담당한 8기 고병수의 활약도 눈부셨다. 이날 인기순위 1위였던 김희준의 외선 반격을 막아내며 당당히 2위를 차지해 기존 강급자들의 완성에 큰 역할을 했다.

같은 날 창원 선발급 결승 경주에서는 22기 박진철이 홀로 타종 후 기습 선행이라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지역 선배인 12기 김무진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22기들이 완패를 기록한 것만은 아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결승 경주에 나선 김민준과 윤현구는 강력한 파워를 앞세우며 기존 강급자 이진영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완승을 거두었다. 두 선수는 초주 자리 잡기에서부터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였다. 한 바퀴 지점에서 잠시 대열이 흐트러져 위기를 맞았지만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직선주로에서 다시 합류하며 각각 추임에 나선 끝에 1, 2위를 휩쓸었다.

경륜왕의 설계석 예상팀장은 “정영훈과 김일규 등 몇몇 강급자들이 고전한 경주에서는 초대 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첫 회차의 경주결과만을 놓고 강급자나 신인들을 맹신하기는 무리다. 22기 최강자인 최래선이 빠진 상태에서의 22기 평가도 아직은 이르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원적외선 아토피 치료기 특허

2주 사용 후 아토피성 습진 가려움증 89.5%, 아토피성 피부병변 75% 호전 확인!

가벼운 경증은 물론 심한 중증증 아토피로 인한 습진과 가려움증까지 완화시켜준다는 의미이다. 서울 소재 2개의 종합대학병원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시험 첫날 20% 가까이 호전 되더니 2주 후에는 아토피성 습진 가려움증의 89.5%, 아토피성 피부병변의 75%가 호전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스톤터치의 핵심기술은 아토피의 주원인인 포도상구균과 습진균을 죽이는 4~16마이크론의 적외선 긴파장에너지(1.5 X 10⁴ W/m²)를 피부속에 침투시켜 이들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 기술 자체는 과학적이고 복잡하지만 사용법은 간단하다. 팔과 다리가 접하는 곳, 겨드랑이, 목, 무릎, 옷에 쓸리는 부분까지 아토피가 있는 곳에 갖다 대고 쬌어주기만 하면 된다.

후대용이라서 가려움 때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앉거나 누워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자극과 거부감이 적어 성별에 상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분께 「스톤터치」를 권합니다!

- 아토피 때문에 시시때때로 피부를 긁는 분
- 자면서도 자주 긁고 가려워 잠을 설치는 분
- 아토피의 완화와 재발이 계속 반복되는 분
-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분
- 부모님 중 아토피를 겪은 경향이 있는 분
- 아토피 주변에 진물이 생기고 거칠어진 분
- 평상시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건조려운 분
- 팔, 다리 등 접하는 곳에 피딱지가 생긴 분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간의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문의 1522-2192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광고문의: 2016-GN-07-0078 · 심의관리청접수번호 : 2016-0430

「스톤터치 홍보대사」 텔런트 정은표 정하은 부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스톤터치」의 사용목적은 간단명료하다.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성인환자의 경증 및 중증증 아토피성 습진 가려움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기」이다.

일양약품

NAVER 일양당케아일랜드

혈당관리 · 혈압조절

참 어려우시죠?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건강한 혈압의 유지, 혈행과 기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1정에 담!

“세월을 피해갈 순 없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너무 아니겠습니까?”

혈당관리, 혈압의 유지,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허브추출물들을 1정에 담은 복합형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화제이다. 바나바잎과 울리브, 올리브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과 확적으로 배합해서 1정에 담은 「일양 당케어알파」가 그 주인공. 식약처에서 인정한 혈당, 혈압, 혈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들을 한 번에 섭취하도록 구성했다. 높은 혈당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바나바잎에는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토로솔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기름진 식습관과 스트레스, 과체중으로 혈당치가 걱정이라면 「일양 당케어알파」로 혈당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자.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올리브유 핀이란 성분 때문이다. 올리브유 핀 함유량은 올리브 나무에서 잎이 가장 높다.

이런 분께 권장합니다!

- 평상시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 분
-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고 싶은 분
- 과식, 과체중으로 혈당조절이 필요한 분
-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 조절이 필요한 분
-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로 혈압이 높은 분
- 혈행개선으로 활력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
- 떨어지는 기력력을 개선하고 싶은 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장 기능성 내용〉

혈당, 혈압, 혈행 3가지에 도움을 주는 복합형 건강기능식품 「일양 당케어알파」

- **바나바잎 추출물 : 토로솔산**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기능성 성분
- **올리브잎 추출물 : 올리브유핀**
건강한 혈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개별인정형 기능성 성분
- **은행잎 추출물 : 플라보놀 배당체**
혈행과 기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기능성 성분

당일 구매고객에 한하여 2주 무료체험분을 추가 증정합니다.

문의 1577-7681